

88고속도로 전 구간 4차로 확장 연내 개통한다

광주 제3순환로 2구간 착공

정부가 올해 88고속도로 전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해 개통하는 등 전국에서 고속도로 21개, 국도 222개의 확장·신설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 제3순환도로의 3구간 가운데 일부 구간 공사 착공을 위해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구간이 2차로로 남아있어 사고 위험이 컸던 88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올해 말까지 4차로로 확장돼 개통된다.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 구간이 개통돼 고속도로 5개(230km), 국도 55개(449km)도 연내 개통된다. 광주 제3순환, 당진~천안 등 고속도로 4개와 원주~새말 등 국도 16개도 신규 착공된다.

광주 제3순환도로(97.46km)는 모두 5개 구간으로 1구간(국지도 49호선, 14.85km), 3구간(고창~담양간 고속도로, 17km)은 이미 개통했으며, 2구간(16.15km) 가운데 민원으로 설계에 들어가지 못한 장성 진원 구간을 제외한 분랑~남면(10.3km)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4구간(담양 대덕~화순)과 5구간(화순~승촌보)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장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광역도로 20개, 대도시권 혼잡도로 12개를 정비하고, 민자 도로 보상비를 지원해 서울~문산 구간은 착공, 수원~광명·광주~원주 구간은 내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도로안전을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사고 잦은 곳 개선, 낙석·산사태 위험 구간 정비, 포트홀(도로에 움푹 팬 곳) 예방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노후 교량 정비(12개), 교량 내진 보강(12개), 터널 방재시설 보강(125개) 등 교량·터널 보수사업과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도로예산은 모두 9조945억원으로, 지난해(8조5335억원)에서 5610억원이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로예산 가운데 57%인 5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너진 옹벽 ... 추

특한 안전



5일 새벽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대화아파트 뒤편 높이 20m의 제석산 옹벽 일부가 붕괴, 무너진 콘크리트 외벽과 토사를 1000여이 쏟아지면서 주차된 차량 49대가 매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입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향토 막걸리의 눈물 ▶14면



복스 '미인별곡' ▶16·17면

학교설립 61주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5일 새벽 광주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편 붕괴 콘크리트·토사 1000t 주차 차량 49대 덮쳐

광주시와 자치구들이 민선 6기들어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군열에 이어 도심 옹벽이 무너져 차량 수십대를 덮치는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대책은커녕 '예산타령'만 되풀이하는 등 무사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긴급 대피한 입주민들은 아직도 남의 집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등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타지역에서는 보기드문 도심 내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시와 자치구들은 '예산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광주시의 재난관리 기금 법정적립률은 47%(969억원 중 454억원 확보)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이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선진 재난시스템의 도입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시 등은 재난안전 분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도로 등 재난관리방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가하면, 재난안전 신고 포상금제까지 만드는 등 시민생명 지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들도 최근 최신 기술인 '3D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한 항공촬영을 통해 아파트나 옹벽 등 안전사고 예상지역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안전전문가들은 이처럼 재난정책 만큼은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사전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선진 안전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돼야할 시점이긴 하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위험지구 대상지역을 정비하는 데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49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편 높이 20m, 길이 188m 옹벽 가운데 30m가량이 붕괴됐다. 옹벽 붕괴로 콘크리트와 토사 1000t가량이 주차된 차량 49대(소방서 추산)를 덮쳤다.

다행히 새벽시간대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게 광주 남구청 등의 설명이다. 무너진 옹벽은 2단으로 쌓아야 하는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등 부실시공으로 지어진데다, 재해위험 B등급임에도 해빙기 위험시설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지난해 1~2차례 육안 점검을 한 게 전부였다.

광주에는 옹벽 등 급경사지를 기준으로, B등급(관리 필요) 77곳, C등급(위험성 지속 점검) 40곳, D등급(위험성 높아 정비 필요) 4곳 등 121곳의 위험 관리지역이 있으며, 이중 6곳만 정비가 완료되고 D등급 2곳을 포함한 115곳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광주시 북구 평화맨션 지하 주차장에서 기동 군열이 발생,



야당의 운명 '호남 黨心'에 달렸다

새정치 전대 D-2... 'KTIX 서대전 경유' 대응방식 논란

호남정치 복원의 '기로'가 될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치닫하면서 후보자는 물론 당원,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이번 전당대회는 호남출신으로 당권 경쟁에 박지원 의원, 최고위원 경선에 주승용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호남정치의 명운을 결정하고, 야권 재편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으로부터 이어진 야당의 탄생과

소멸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호남인들은 최근 10여년 동안 좌초해가는 '호남정치' 복원 가능성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수도권외의 표까지 최대 3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 대의원 표가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호남의 지지가 없는 당권은 명분도, 실질적 리더십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일관된 분석이다.

5일 현재까지 정치권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당권은 문재인·박지원 후보의 양강

구도가 확실히 형성된 상황에서 막판 변수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호남의 최대 현안의 하나로 떠오른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우 논란과 관련, 문 후보가 최근 토론회에서 모호한 입장을 보여 경선의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또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주승용 후보가 전병헌·정청래 후보와 함께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우삼·오영식·문병호 후보가 5강 진출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경선의 하이라이트인 대의원 투표는 8일 오후 1시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실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5광주 유니버시아드

170여개국 세계 대학생 올림픽

Global Premium Partner

Official Partner

Official Sponsor

기간 및 장소 : 2015. 7. 3 ~ 14(12일간), 광주 및 인근 사군 경기장

종목 및 규모 : 21개(정식13개/ 선택8개), 170개국 2만여명

정식종목

선택종목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수지